

## 맞벌이 가족을 위한 코하우징 제안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와 모의실험을 기초로-

한 주 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 주거학 전공 겸임교수)

최 정 신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 주거학 전공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을 줄여주고,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상호 지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대안으로 코하우징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의 코하우징에 대한 의식과 요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맞벌이 가족의 주거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코하우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며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진 맞벌이 부부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면접조사는 30명의 조사대상자를 본 연구자가 직접 만나 사진자료와 모형을 이용하여 코하우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조사대상자에게 코하우징에 대한 의식과 요구를 묻는 설문지를 나눠주고 직접 작성케 하였다. 이와 함께 조사에 참여한 30명 중에서 20명을 대상으로 공동생활시설계획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하우징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자녀양육·주거계획과 관리에 대한 거주자 참여의식이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코하우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활동에 대한 점수는 저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코하우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주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코하우징의 필요성 점수보다는 낮았다.

둘째, 코하우징의 요구를 종합하면, 대도시 근교에서 공고를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10~29가구로 구성하고, 개인소유의 저층구조 주택을 원하였다. 개별주택은 일반 맞벌이 가족의 주거요구와 같게 나타났다.

공동생활시설 계획의 구체적 요구를 살펴보기 위한 모의실험에서는 자녀관련 공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기능·인원수에 따른 융통성 있는 설계, 동적공간과 정적공간의 분리를 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도 사회에 혼재된 전통 가치관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 맞벌이 주부에게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공동활동 및 협조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대안으로 코하우징을 제안하였으며, 조사결과 많은 맞벌이 가족이 코하우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코하우징의 개발은 멀지 않았다고 사료되었다.